

논개고을 푸른자수

탄신 제442주년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



# 의암 주논개 축제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Memorial of her 442th birth

2016. 10. 3(월)



장수군

사단  
법인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의암 주논개 약사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회를 따라감.

1582년(9세) 최경회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1587년(14세) 최경회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1590년(17세)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시 부사의 아내가됨. 최경회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1592년(19세)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1593년(20세)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 논개고을 푸른장수

## 군민현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꽂 피운다.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한다.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 군정방침

###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1. 보람을 이루는 경영·행정
1. 모두가 잘사는 농업·복지
1. 특성을 살리는 문화·관광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골 마 다 줄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정 답 계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앗 뿐 려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룩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롭

계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 이루세

(후렴)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탄신 제442주년 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 의암 주논개 축제 일정표

### ■ 공식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제례봉행	2016.10.03 08:30~09:50	의암사 영정각	<b>■ 행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관 : 선양회제전위원회</li><li>제례음악 : 국악연주</li><li>제례봉행 : 초헌, 아헌, 종헌관</li><li>참가자 : 100명(의회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유림회원, 향교집행부 등)</li></ul>
군민의 날 기념식	2016.10.03 10:00~10:30	장수 종합경기장 야외무대	<b>■ 행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념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회</li><li>- 국민의례</li><li>- 국민현장 낭독</li><li>- 군민의장 수여</li><li>- 기념사, 식사, 축사</li><li>- 장수의 노래합창</li><li>- 폐회</li></ul></li></ul>
주논개상 추대식	2016.10.03 10:30~11:30	장수 종합경기장 야외무대	<b>■ 행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추대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추대자 공적보고(사회자)</li><li>- 주논개상 시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충의관 수여 : 군수</li><li>- 축하 꽃 전달 : 군의장 외 3명</li><li>- 상금권 및 상증전달 : 선양회장</li><li>- 9대 논개 상 수상자 인사</li><li>- 폐회 및 기념촬영</li></ul></li></ul></li></ul>

탄신 제442주년 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 의암 주논개 축제 일정표

### ■ 공연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식전공연] 기타 싹소폰연주	2016.10.03 09:10~09:40	장수 종합경기장 야외무대	<b>■ 공연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출연단체 : 장수 기타·싹소폰연합회</li><li>참가인원 : 10명</li><li>공연내용 : 합창 및 개별연주</li></ul>
풍물시연	2016.10.03 09:20~09:50	장수 종합경기장 주변	<b>■ 행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관 : 전라좌도 장수군보존회</li><li>내용 : 전라좌도 장수굿</li><li>참가인원 : 50명</li></ul>

### ■ 대회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제6회 전국 논개 시 퍼포먼스 대회	2016.10.03 14:00~18:00	한누리전당 소공연장	<b>■ 행사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개최일시 : 2016. 10. 3(월) 14:00</li><li>주최 : 장수군,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한국문인협회 장수군지부</li><li>주관 :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한국문화교육 개발원</li><li>참가자격 : 대한민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시를 사랑하는 사람</li><li>낭송기준 : 지정시낭송(논개시사전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팀당 2명이상 참가</li></ul></li><li>참가신청서 및 접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기간 : 2016. 8. 31(수)~9. 10(토)</li></ul></li><li>원서접수처 : 한국문화교육개발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li></ul></li><li>심사기준 : 시의선택, 이해, 낭송, 발성, 감정, 표현력, 태도, 반응 등의 종합평가</li></ul> <b>■ 시상(7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상(論介) : 1팀(전라북도지사상)</li><li>금상(忠) : 1팀(장수군수상)</li><li>은상(孝) : 2팀(선양회장상)</li><li>동상(烈) : 3팀(장수군의회의장상)</li></ul>

탄신 제442주년 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 의암 주논개 축제 일정표

### ■ 체육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군민체육 대회	2016.10.03 13:00~17:30	한누리종합 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p><b>■ 행사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관 : 장수군체육회</li> <li>경기종목 : 12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구, 배구, 씨름, 단체줄넘기, 투호, 400m계주, 4000m, 고리걸기, 배드민턴, 웃놀이, 게이트볼, 제기차기</li> </ul> </li> </ul>

### ■ 부대행사

행사명	시간	장소	행사내용
심포지엄 개최	2016.10.02 16:00~18:00	장수 계남면 타코마 연회실	<p><b>■ 행사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관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 적십자봉사회</li> <li>참석대상 : 유관기관장, 선양회회원, 군민 등</li> </ul>
논개배 바둑대회	2016.10.03 10:00~13:00	다목적실	<p><b>■ 행사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관 : 장수군 바둑협회</li> <li>대 상 : 바둑동호인</li> <li>진 행 : 예선 및 본선</li> <li>시 상 : 고급부, 중급부, 하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승, 준우승, 장려상</li> </ul> </li> </ul>
사진 전시회	2016.10.03 09:00~14:00	장수 종합경기장 주변	<p><b>■ 행사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 : 장수동그라미사진연구회</li> <li>사진전시 : 22점(장수지역사진)</li> </ul>
장수문학 시화전	2016.10.03 09:00~14:00	장수 종합경기장 주변	<p><b>■ 행사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 : 한국문인협회 장수군지부</li> <li>작품전시 : 40점(회원작품)</li> </ul>

# 의암 주논

**논** 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빼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 (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



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관아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회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회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틈틈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세** 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제로 2년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鵠)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얹누르고 한시 바삐 진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남복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



# 개일대기

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첨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희,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촉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촉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불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촉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촉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쪽을 내려다 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 기념사



들녘으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날,  
의암 주논개 탄신 442주년 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수군은 백두대간을 잇는 전국 8대 종산 중 하나인 장안산을 주봉으로  
힘차게 내리뻗은 능선들이 웅장한 기개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자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으로 주논개님을  
비롯해 용성진종조사, 건재 정인승 박사, 문태서 · 박춘실 의병장이  
탄생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특히 주 논개님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경희 후처로 들어가 임진왜란 때 최경희가 전사하자 술에 취한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를 피어 벽류(碧流) 속에 있는 바위에  
올라 껴안고 진주 남강(南江)에 투신 순절한 한국 여인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장수군은 매년 주 논개님의 탄신일을 즈음해 나라사랑과 국가  
발전에 귀감을 보여준 여성을 선정해 주논개상(朱論介像)으로 추대하며  
주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충절 정신을 되새겨 왔습니다.

또한 장수군민의 화합한마당인 군민의 날을 개최하며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앞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고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장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장수군이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암 주논개 탄신 442주년 기념 및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장수군수 | 최용득

## 대회사



국화향기 그윽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전 국민이 추앙하는 우국충절의 여인인 의암주논개님 탄신제 442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수군민과 함께 경하를 드리는바 입니다.

의암주논개님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국의 일념으로 꽂다운 나이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시고 진주 남강에서 왜장 모곡촌육조을 껴안고 장열이 산화하신 불멸의 민족hon입니다.

아울러 오늘 논개님 탄신일을 경하해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 하심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과 해주최씨, 신안주씨 어르신들, 그리고 그동안 의암주논개상으로 추대되신 분들께서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국의 여인 논개님께서 우리 고장 장수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장수군민의 무한한 자긍심이며 자랑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논개님 정신 선양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논개님 정신 선양을 위한 논개님 홈페이지 개설과 논개님 일대기 영상물 제작을 통하여 논개님 생애와 선양 사업 등을 자세히 소개 하였습니다.

장수군민과 전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송양 받아온 불멸의 민족hon 논개님의 정신이 후세에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논개님 정신 선양과 넋을 기리는데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여성의 귀감으로 제10회 의암 주논개 상으로 추대되신 김별아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사)의암 주 논개 정신 선양회장 | 김 순 홍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의암 주논개 탄신 제442주년을 기념하는 ‘제10회 의암 주논개 축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수군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축제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양해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수군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경남 진주 남강에 투신한 그 어떤 여인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의암 논개가 태어난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는 우리 장수군의 자랑이자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는 논개의 충효 정신과 호국정신을 알리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논개의 호국충절 정신을 기리고 뜻을 잊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고, 의암주논개상 시상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여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논개정신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에서 벗어나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변화하고 보다 혁신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논개정신을 더욱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논개정신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암주논개 축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아가면서 애국·애향의 마음과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의암주논개 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논개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회의원 | 안호영

# 축 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한 하늘, 수학의 기쁨이 충만한 풍요로운 계절에 의암주논개 탄신 442주년을 맞아 의암주논개 축제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충절의 상징인 주논개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순홍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의로운 기개를 가진 논개님 같은 분은 우리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풍전등화의 나라를 위해 초개 같이 목숨을 던지신 논개님의 넋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축제로 우국충절의 표상이신 논개님의 희생정신을 되돌아 보는 것은 물론, 군민이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장수군의회의장 | 유 기 홍

# 의암 주논개의 유적



논개상



생장향수명비



의암사 기념관



의암주논개랑생장지  
사적불망비



논개 생가



최경회장문 추모비



의암 주논개 생가지

# 우리 고장 명소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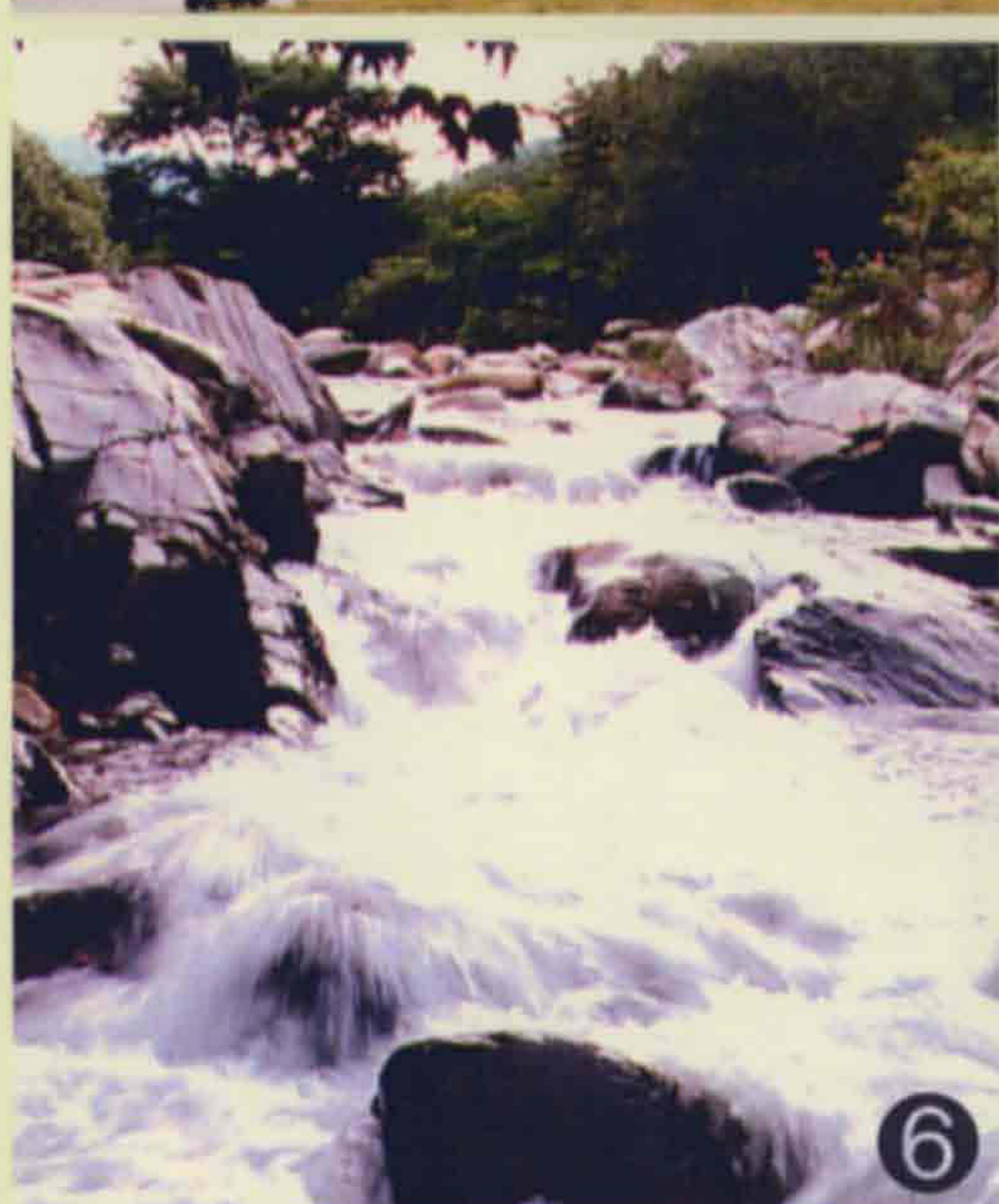
③



⑤



④



⑥



⑦

## ①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신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②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③ 어필각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조선조 영조 27년(1752년) 태종이 사간공 천곡 안성 선생에게 내려준 어필 왕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서면 오성리에 창건 하였다.

## ④ 방화동가족휴가촌 / 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⑤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⑥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⑦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 내에 연수의 집, 산막, 둘·눈썰매장, 둘놀이장, 잔디광장 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의암 주논개 축제  
만자취





##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 이덕 二德



## 정인재 백장(靜慎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 등을 배향

◀ 정인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 · 예조 · 병조 · 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영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 내)

###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0.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암고 남강에 순절

####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 (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2000. 생가지 현위치 이전

####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 1997 장수의 표상

## 삼절 三節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 하며, 성전을 불사르려 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그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 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펑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현승이 순의리 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의병대장 문태서 ·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 오의 五義

###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혜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정인승 선생 기념관(계북면 양악리)

### 정인승 선생(鄭寅承 先生)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같이의 가치 NH 농협

**NH농협장수군지부** 우리농업·농촌과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지부장: 이승진 장수농협협동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협동조합장: 곽점용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마이돈 장수간우 O 오감만족 '무진장행복' 동반자



**무진장축산협동조합**

조합장 송제근

본점 433-6002 안성지점 323-1365 장계지점 352-0365 섬유질사료공장 433-3002 양돈계열화사업소 432-2897  
무주지점 322-3006 장수지점 351-2390 유전자센터 432-0207 축산물물류센터 433-8110 한우계열화사업소 351-1600

백년을 넘어 다음 백년도  
장수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장수 농산물”



장수사과



장수명풀한우



장수 벼루기쌀



장수오미자

NH NongHyup

장수농협

[www.applenh.com](http://www.applenh.com) / ☎ 063-351-2280



장수농업협동조합

<http://www.jsapple.co.kr>

장수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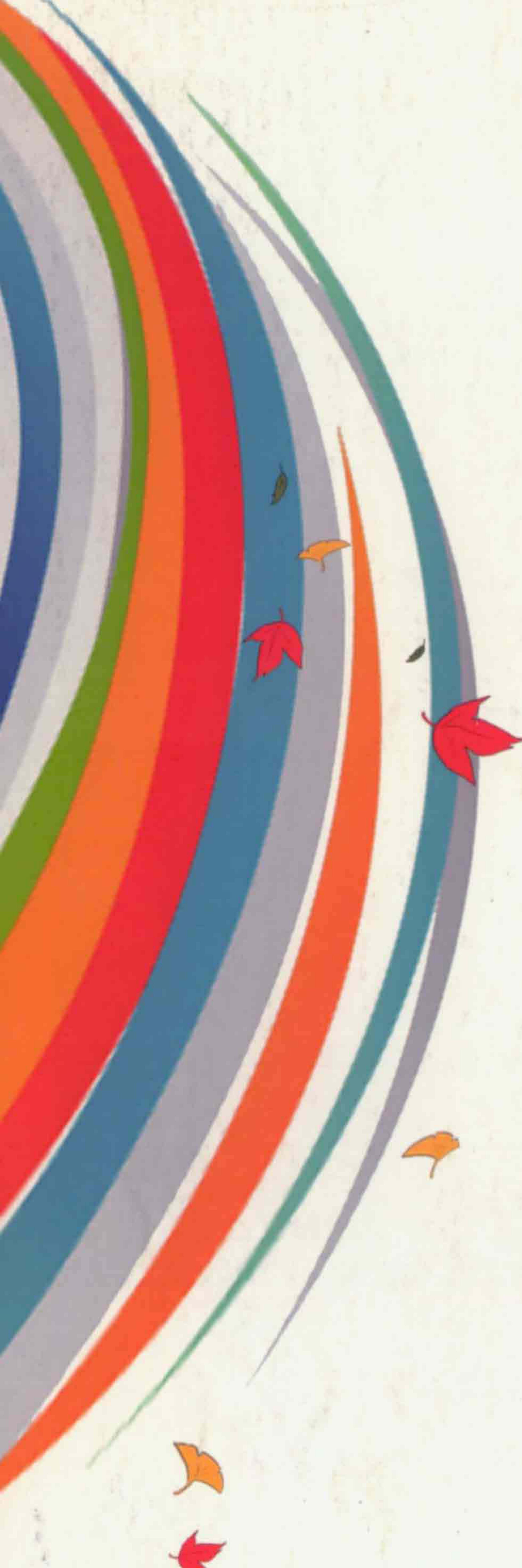
세계 최고의 사과!

사과의 본고장 장수에서 장수사과영농조합이 함께 합니다.



장수사과 영농조합법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915번지 Tel. 063.351.7011, 351.7012 Fax. 063.351.7012



# 논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눕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꽂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